

24일까지 '달그락 멥그락 1기' 접수  
주거 무상 제공...생활·실습비 지원  
예담창고 단장·핵심 소통 창구 발전

광양시가 타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초기 창업 유도를 위한 대규모 청년 복합 거점공간을 본격 가동한다. 16일 광양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올라(GO郷 ALL來)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4일까지 청년 창업 프로그램 '달그락 멥그락 1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광양시가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해 지역 정착과 초기 창업 유도 지원하는 '달그락 멥그락 1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달그락 청년공작소 전경 모습. (광양시 제공)

# 광양시, 타지역 청년 지역 정착·창업 지원 본격화

이번 사업의 핵심 거점인 청년복합공간은 광양읍 소재 예담창고를 전면 리모델링해 조성했다. 해당 장소는 연면적 140㎡ 규모의 실습 공간을 비롯해 공유 오피스 2실, 전용 실습실 2실, 공유 주방, 커뮤니티 공간 등 창업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완비했다.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참여 청년들이 본인의 창업 아이템을 현장에서 직접 실험하고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전형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거점 개소에 맞춰 첫선을 보이는 '달그락 멥그락'은 창업 과정의 역동적인 소리를 뜻하는 '달그락달그락'과 전라도 방언 '멍글다(만들다)'를 결합한 특화 프로그램으로, 1기 교육은 오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3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세부 커리큘럼은 오리엔테이션 및 창업 기초 교육을 시작으로 지역 자원 탐방, 특화 굿즈 디자인, 시제품 제작 및 전시, 수료식 등 창업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실무 중심으로 짜여졌다.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해 지원 대상을 광양시 외 타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제한하며, 기수별 10명을 선발한다. 최종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3주간의 전문 교육 과정과 맞춤형 주거공간이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수료자에게는 초기 창업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소정의 생활비와 실습비도 추가로 지원해 실질적인 지

역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신청 희망자는 모집 안내 포스터에 삽입된 정보(QR코드)나 광양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구글 폼)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1기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총 7기에 걸쳐 해당 프로그램을 연속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합공간 내 공유 주방을 적극 활용한 식사 교류 프로그램 '커넥트 온(connect'on)-

소셜 다이닝'을 병행 가능해, 해당 공간을 타지역 청년들과 지역 사회가 자연스럽게 융합하는 핵심 소통 창구로 발전시켜 나갈 구상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체류형 지원과 결합된 창업 테스트베드를 통해 타지역 청년들이 광양의 지역 자원을 활용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성공적인 창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여수시는 최근 시장 권한대행 주제로 제4차 준비상황 보고회를 열어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 행사 추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여수시 제공>

# 여수시 'UN 기후주간' 손님맞이 준비 마쳐

20-25일 박람회장서 개최  
24시간 종합상황실 풀가동

항을 최종 점검했다. 총사업비 24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행사는 당사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 2만1천여명이 운집한다. 현장에서는 녹색대전환(GX) 고위급 정책 대화, 기후환경에너지대전(KEET), 세계 기후도시 포럼 등이 잇따라 열리며, 유엔 기후변화협약 부사무총장 등 주요 외빈이 참석해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시는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31개 회의장과 163동의 부스 조성을 마치고, 국제관 A동에 24시간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 인파 밀집에 대비해 소방·전기 합동 안전 점

검을 완료했으며, 행사 기간 경찰 1개 중대와 소방 장비 7대,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현장에 상시 배치해 관람객 안전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와 함께 행사 기간 현장에 '2026여수세계박람회' 종합홍보관을 별도 운영하며 글로벌 단위의 홍보 시너지도 극대화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여수가 국제적인 기후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섬박람회 개최 역량을 증명하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라며 "남은 기간 현장 상황을 세심히 살펴 단 한건의 사고도 없는 완벽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 장흥군,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추진

65세 이상 150명 선착순 모집

16일 장흥군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만성질환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1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 건강 평가 결과에 따라 순목 활동량계, 체성분계, 혈압계, 혈당계 등 블루투스 연동 스마트 기기를 선물 지급받는다.

스마트폰 전용 앱인 '오늘건강'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보건소 전문 간호사에게 전송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 비대면 맞춤형 건강 상담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군은 스스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혈압 측정 등 맞춤형 미션을 부여하고 달성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해당 사업은 참여자의 건강 지표 개선 성과와 함께 주민 99%의 높은 이용 만족도를 기록했다. /장흥=노정록 기자

고흥 '천년사찰 능가사' 연계  
명상 관광 육성...8-11월 운영



고흥군이 지역 내 유서 깊은 사찰과 수려한 해양 자연경관을 접목한 체류형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16일 고흥군에 따르면 전남도가 주관한 '전남 천년사찰 세계명상 관광'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팔영산 능가사(사지)를 중심으로 한 명상 특화 프로그램을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집중 운영한다. 핵심 프로젝트인 '남도 천년사찰, 명상 여행 해봤는가'는 싱잉볼을 활용한 사운드 테라피, 다도해 파도 소리를 접목한 해변 걷기 명상, 스님과의 차담, 팔영산 주제의 참여형 질문 명상 등 차별화된 치유 콘텐츠로 채워진다. 군은 이번 명상 프로그램을 지역 핵심 인프라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능가사 주변에 밀집한 고흥우주발사전망대와 남열해돋이해수욕장 등을 연계 코스로 활용하고, 녹동항 드론쇼, 우주과학열차, 남도 숙박할인 등 체류형 지원 상품과 접목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능가사와 청정 다도해를 아우르는 특색 있는 웰니스 관광 모델을 단단히 구축해 밀도 높은 쉼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 장길선 구례군의장, 생활 밀착형 민생 정책 주요

현직 꺾고 '인물 교체' 여론 입증  
경선 분열 봉합·원팀 구성 과제

과 극심한 혼선도 표심 결집에 영향을 미쳤다. 앞서 1차 경선 탈락 후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군수의 공천 배제를 촉구했지만, 결선 국면에서 일부 후보가 장 후보 공개 지지로 화답한 반면, 함께 배제를 외쳤던 신동수 후보는 김 군수 지지로 선화하며 명분 없는 선택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다만 치열한 경선 과정에서 후보 간 갈등과 지지층 분열이 심화된 점은 본선 전 극복해야 할 과제로, 장 후보는 본선 승리를 위해 경선 후 유증을 최소화하고 흩어진 당심을 하나로 묶는 '원팀' 구성을 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지역 정가 관계자는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며 기자회견까지 했던 후보가 현직 지지로 선화한 것은 명분 없는 선택"이라며 "군민들이 결국 장 후보를 선택하며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다"고 분석했다. /구례=김세중 기자

장길선 구례군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구례군수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등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구례군수 결선 투표 결과, 장 의장이 김순호 현 군수를 꺾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장 후보의 승리 배경에는 37년 교직 생활로 다져진 청렴한 이미지가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현직 군수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깨끗한 대안으로 부각된 데다, 구례형 기본소득 지급과 서시천 테마관광단지 조성 등 생활 밀착형 민생 정책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과고 들었다. 또한 결선 과정에서 빚어진 후보 간 합종연횡



# 담양군, '다 함께 걷기 데이' 프로그램 운영

담양군은 16일 "군민 건강 증진과 일상 속 걷기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읍·면별 맞춤형 '다 함께 걷기 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걷기 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10개월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읍·면별로 구성된 총 12개 팀, 4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다. 이들은 매일 한 차례 지정된 4-6km 구간의 코스를 함께 걸으며 행사 현장에서는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스트레칭과 올바른 걷기 자세 교육이 병행된다. 이와 함께 군은 대면 활동과 더불어 비대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WalkOn)' 커뮤니티를 연계해 자발적인 걷기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개설된 해당 커뮤니티에는 현재 6천600명이 가입해 활동 중이며, 연평균 약 50%의 높은 걷기 실천율을 기록하고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

# 보성군, 다향대축제 연계 어린이날 행사 개최

내달 5일 한국차문화공원서  
골든벨·만들기 등 체험 다채

현장에서는 목공 블록 조립, 인생네컷 촬영, 카네이션바구니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특히 주요 프로그램인 초등학생 대상 '도전 골든벨'은 오는 20일부터 온라인 선착순 접수 50명당 당일 현장 접수 50명을 합쳐 총 1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이밖에 청소년 댄스팀 무대와 발원쇼, 버블쇼 등 맞춤형 공연도 잇따라 펼쳐지며, 5월1-5일 열리는 제49회 보성다향대축제 기간에 병행 개최돼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일림산 철쭉행사, 녹차마라톤대회 등 대규모 지역 연계 축제 콘텐츠를 한곳에서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보성=임병연 기자

보성군은 지역 대표 축제인 다향대축제와 연계해 온 가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16일 보성군에 따르면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다음 달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국차문화공원 잔디광장 일원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보성문화재단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다채로운 체험 부스와 무대 공연으로 구성되며,